

전주의 문화, 바다 건너 해외로 뻗다

# 한지·음식, 그리고 창극까지...

천 년을 이어오며 고스란히 간직해온 판소리 등 전주의 소리가 담긴 공연문화 콘텐츠인 전주마당창극이 최초로 유럽 순회공연에 나서게 된 것은 전주의 문화영토를 넓혀 문화가 관광으로, 관광이 산업으로 연결 되는 전주형 관광경제를 키우기 위함이다.

전주마당창극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펼쳐지는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주목을 받게 되면, 기록문화의 보고인 가톨릭 바티칸 교황청과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인정하는 전주한지, 맛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프랑스 파리에서 주목을 받은 전주한식에 이어 또 한 번 전주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티칸 교황청, 루브르박물관 매료시킨 전주한지

풍부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이미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이미 전세계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면서 문화영토를 넓히고,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전주한지의 경우 해외에서도 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우수한 종이로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전주한지는 세계3대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활용되면서 세계화 가능성과 세계적인 기록문화재 복원용지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열었다.

나아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다양한 서적과 편지 등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 기록문화의 보고로 불리는 바티칸교황청이 소장중인 편지 기록물을 전주한지를 사용해 원본과 똑같이 만든 복본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단 한 권만 남아있던 원불교의 초기경전을 전주한지로 복본해 기증했으며, 전주한지는 최근 이슬람경전 제작에 사용되는 등 우수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파리지앵의 입맛도 사로잡은 전주한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품격에 걸맞게 전주음식도 전주한지처럼 전주의 문화영토를 넓히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의 선봉에서 서서 맹활약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프랑스 파리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스페셜에서는 전주한식과 함께 전주음식, 전통주 등이 집중 조명됐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한 '테이스트 코리아'는 한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로, 올해는 전주시가 단일 도시로는 최초로 선정돼 집중 조명을 받았다.



전주마당창극이 오페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 순회공연을 한다. 이탈리아에 진출하는 전주마당창극 '변신도 생일잔치'는 '춘향기'를 소재로 한 2018년 초연작이다.

### 교황청 편지 기록물 한지로 복본 전주한식, 테이스트 코리아서 조명 전주마당창극, 이탈리아 공연 성사

테이스트 코리아의 메인행사였던 '전주의 날'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장,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와 현지 교민, 현지언론과 여행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식음식 대연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전주한식에 대한 파리시민의 뜨거운 반응을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시는 또 대한민국 지역문화자수 1등 도시답게 우수한 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다양한 해외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2016 프랑스문화주간, 2017 영국문화주간, 2018 미국문화주간 등 올해로 3년째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는 세계에서 통하는 한지와 한식, 연간 천만명 이상이 찾는 국가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등 세계 그 어떤 도시보다 우수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면서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 선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8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가 불이익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8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가 불이익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 넘긴 30대 주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33·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생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주간 대여해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자금이 이동 경로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 사회적경제 주체 상생·화합 | 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워크숍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주체간 상생과 화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주체간 교류행사인 올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운영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과 제안 그리고 지역 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는 심재균 (주)문화화 대표와 고은하 전주지역사회발전센터장, 김창환 전주도시혁신센터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협동문화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현재, 이곳에는 전주시 사회적기업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1일과 22일 완주군 상관리조트에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주체간 상생과 화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

협의회와 전주지역 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20여개 기관 및 조직이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일자리 정책 발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지원,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재균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자 사회적경제주체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며, 또한 "지역사회에 의

### 전북 시군의장협의회장에 박병술 전주시의장

협의회 월례회·임시총회서 상임부회장에 온주현 김제시 의장·신대용 임실군의장 감사에 김경구 군산시의장 김종문 군산시의장 등 선출



김종문 군산군의 회 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박병술 협의회장은 향후 2년간 전북시군의 회를 이끌게 된다.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전북시, 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23일 정읍시의회에서 제236차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제8대 전반기 전북시, 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 상임부회장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신대용 임실군의의회 의장을, 감사에는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과

박 회장은 "태풍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시, 군의회가 지자체와 함께 피해 예방과 복구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김종문 군산군의 회 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박병술 협의회장은 향후 2년간 전북시군의 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박병술 회장은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도민들의 행복 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태풍 솔릭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 의회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만전

#### 전주시, 전국 10·장애인 6개 종목 경기장 개보수 등 나서

전주시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제99회 전국 체육대회와 제38회 장애인 체육대회 성공개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은 각각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전주에서 열리는 수영과 사이클, 농구, 시범종목인 택견 등 이번 전국체전의 10개 종목을 차질 없이 치러내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종합상환실 구축과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경기장 시설 개보수 등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경기장의 경우, 선수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막바지 시설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산악 종목이 개최되는 완산체육공원 인공 암벽장의 경우 이달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사이클 종목이 열리는 경륜장은 이달 중 최종 공인판을 넘겨주고 있다.

또한, 수영 종목이 펼쳐지는 완산수

영장의 경우, 총사업비 51억원이 투입돼 내·외부마감재 교체와 전광판 교체, 샤워장 및 탈의실 리모델링 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21일 공사가 완료되면 전주시장배 수영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체전 대비 최종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해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경기장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선수들의 기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대회 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는 오는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전국체전 성화)과 익산 마륜사지(장애인체전 성화)에서 채화되며, 8일 전주를 지나 11일 주 개최지인 익산시에 도착하게 된다. 8일 전주에 도착한 성화는 오전 9시 30분 전북도청을 시작으로 전주시청 광장과 전통성당을 거쳐 한옥마을 오목대에 이르게 되며, 5구간으로 나뉜 각 구간을 2명의 주자가 성화를 들고 뛰게 된다. /송효철 기자

### 여름 휴가철 사망·대형사고 '제로'

####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전북경찰청소속의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안전대책을 50일간 추진하여 이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사망사고 및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9지구대는 이 기간동안 익산장수간, 순천원주간, 광주대구간고속도로 등 관할 구역을 한국도로

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및 졸음운전예방 캠페인 등 취약시간대 합동순찰을 하고 피서객 급성수기 기간에는 난폭운전을 예방 및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암행순찰차 합동근무도 했다.

또한, 추진기간 동안 주·야간 시간대 및 장소를 정하지 않고 불시

에 실시하는 '스팟이동식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의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웠다.

신상만 9지구대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피서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여성단체협, 생활속 녹색도시 만들기 실천 교육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속에서의 녹색도시 만들기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김진태 전북환경생태연구소 박사와 남궁은희 예코스토어협동조합 대표가 강사로 나서, 환경과 질병, '친환경 교육(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교육을 했

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천연화장품과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며 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